

예술가의 실험, 파이로플라스틱과 환경예술

바다쓰기 김지환 대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아시나요?



따뜻한 인생이야기와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화면에 잘 담겨있는 드라마이기도 하죠



저도 제주의 아름다움에 빠져 2013년 가족들과 이주해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눈앞에 낭만적인 풍경만
펼쳐진건 아니었습니다.**



**이주 첫 해 관광객은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수도 면적이 큰 하와이보다 많아집니다.**



**제주도는 현재는 약 70만명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서 과연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원주민은 밀려났고 이주민과
대화가 단절돼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관광지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들로 붐벼 교통문제와 쓰레기문제가 반복됐고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이면 하수처리를 못해 똥물이
바다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주한 첫해 제주는 제가 꿈꿔온 삶과 거리가 있었습니
다. 마침 8년간의 기자생활도 그만두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제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화가의 꿈도 기사를 그만두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생활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어느덧 아이들의 순수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수업중 한 어린 친구가
"선생님도 화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 순간 '내 꿈이
뭐였을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좋으니 다시 창작이란걸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게
바로 바다쓰레기였습니다.**



**대학시절 물감 살 돈이 없으면 주변에 버려진
재료를 모아 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는 알록달록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 재료가 매일 넘쳐났습니다.



하나씩 작품을 만들면서 삶이 즐거워졌고
어린 자녀들과도 여유를 즐기면서 낭만적인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환경에 깊은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이다 보니 제주에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은 알았지만 깊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말이면 플리마켓에 나가 자리를 펴고 작품을 꺼내 놓았고, 아이들의 관심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고, 전시요청과 방송 촬영요청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을 본 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정식으로 수업을 요청했고,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체험형 환경교육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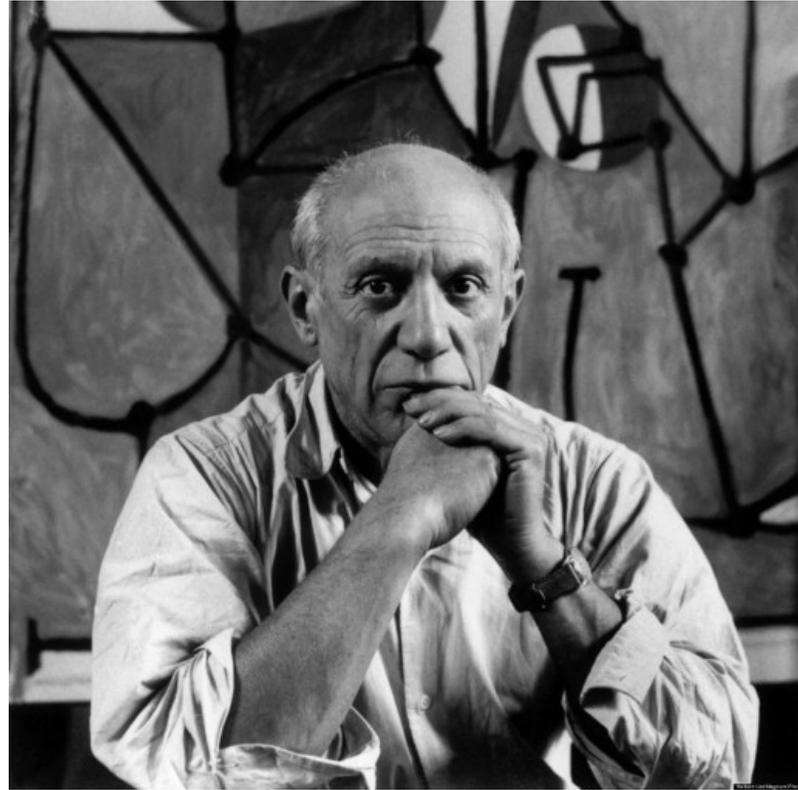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10년간
약 50,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쓰레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더러운 것 혹은
불필요한 것 등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저와 함께 수업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때 해양쓰레기가 우리에게 상상력을 선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멋진 화가라구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실을 점점 잊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바닷가에 떠밀려온 이 쓰레기들이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수업과 전시를 반복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인터뷰 요청은 물론 환경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해양쓰레기가 주는
행복감에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일본에 초대를 받아 전시와 체험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이어졌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조금씩 그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주 찾던 해안가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돌조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은 돌이지만 무게는 가벼운 이상한 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도 몰랐고 그 돌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날 이상했던 돌이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던 장소에서 같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바닷가를
청소하면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소각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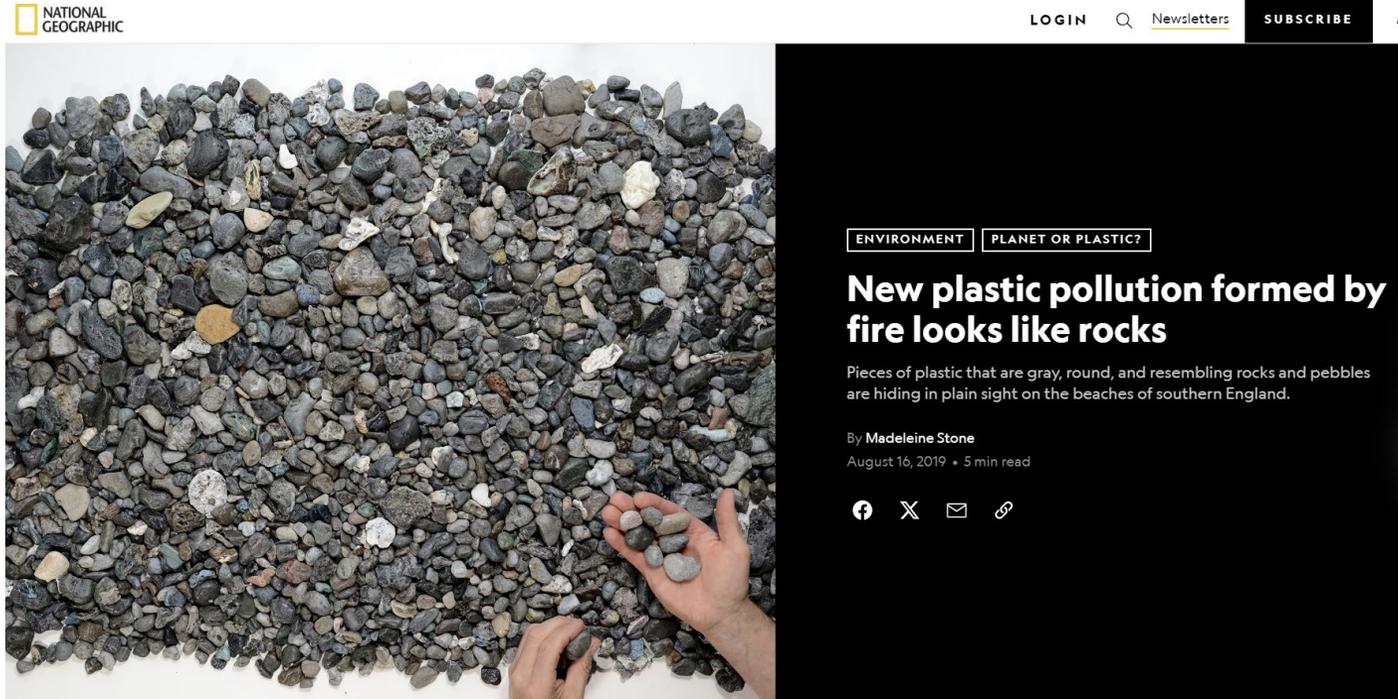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게 목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물, 부표, 등 플라스틱 재질이 함께
태워지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부피는 줄어들었지만 구분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위에 달라붙었다 떨어진 플라스틱은 다시 독성이 더 강해진 미세플라스틱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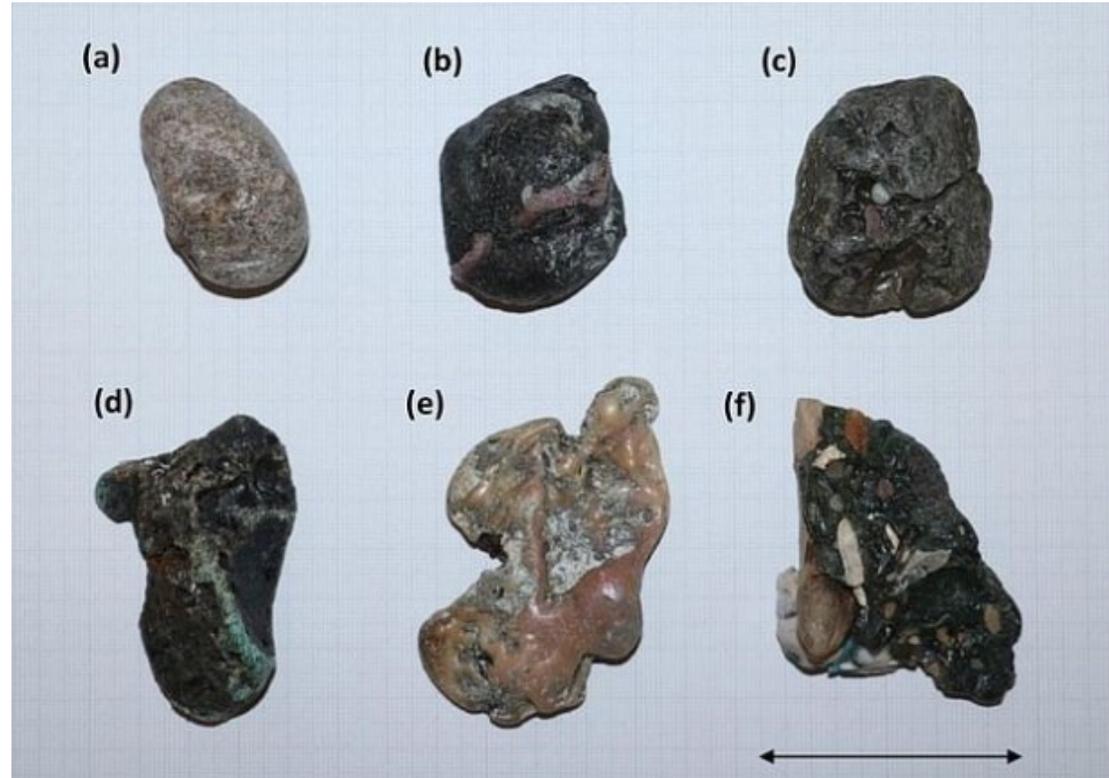
뒤늦게 알게 된 이 가짜돌의 이름은 바로 '파이로플라스틱'이었습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은 2019년 처음 영국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 한국은 2021년에서야 기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로플라스틱에 대한 논문은 2019년 영국 폴리머스 대학 연구팀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파이로플라스틱이 발생하기 시작한건 적어도 수십년 전부터 이지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건 불과 몇년밖에 안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국 파이로플라스틱은 자갈모양인데
반해 제주도 파이로플라스틱은 현무암 모양입니다.
지역환경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 연구진은 SNS를 통해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
아일랜드 케리주, 스페인 북서부에서도 파이로플라
스틱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실험결과 운반용봉지, 슈퍼마켓 포장용기, 플라스틱
냄비, 테이크아웃 용기 등에서 만들어 진것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크롬과 납, 그 외에 플라스틱 색을 입히는
화확첨가물도 밝혀냈습니다. 그 수치는
2003년 유럽연합 안전한도를 초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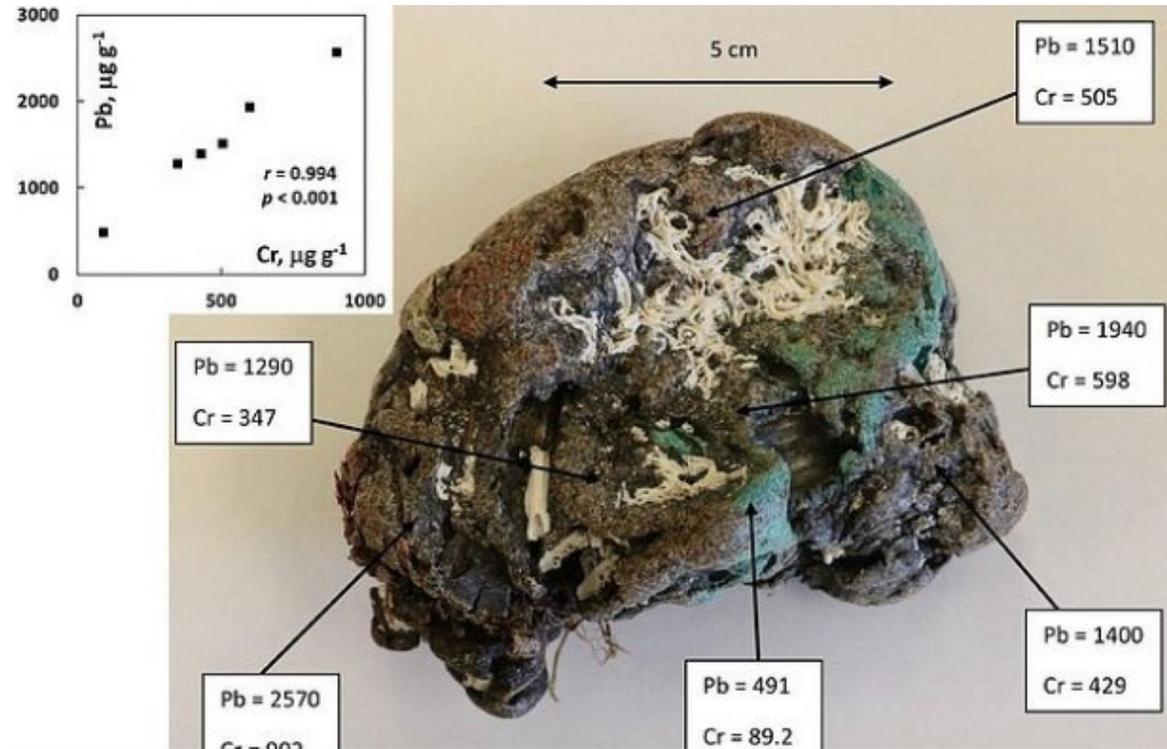
2022년 브라질 연방대학 지질학자 페르난다 아벨라드 산투스의 논문도 주목을 끄니다. 그녀는 2019년 6월 화산섬 해변의 플라스틱 돌을 처음 발견합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녹아서 만
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플라스틱 폐기물이 녹아 결국 해양생물과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열에 의해 녹아내린 플라스틱은 학술적 용어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플라스틱이 녹아 바위에 달라붙은 '플라스틱스톤'과 암석, 조개와 같은 다른 자연물에 결합한 '플라스티 글로머레이트', 그리고 침식과정에서 둥근 모양을 띄며 돌멩이와 비슷한 '파이로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모두 열에 의해 녹았다 식으면 다시 굳어버리는
열가소성 수지(플라스틱)을 이야기합니다.**



**논문에 앞서 이 물질들이 처음 설명된건 2014년 태
평양 쓰레기가 모인 하와이 해변이었습니다.**



최근까지 북해의 헬골란드 섬, 유럽, 카리브해의 아베스 섬,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해안의 해변, 중국의 개울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100% 발견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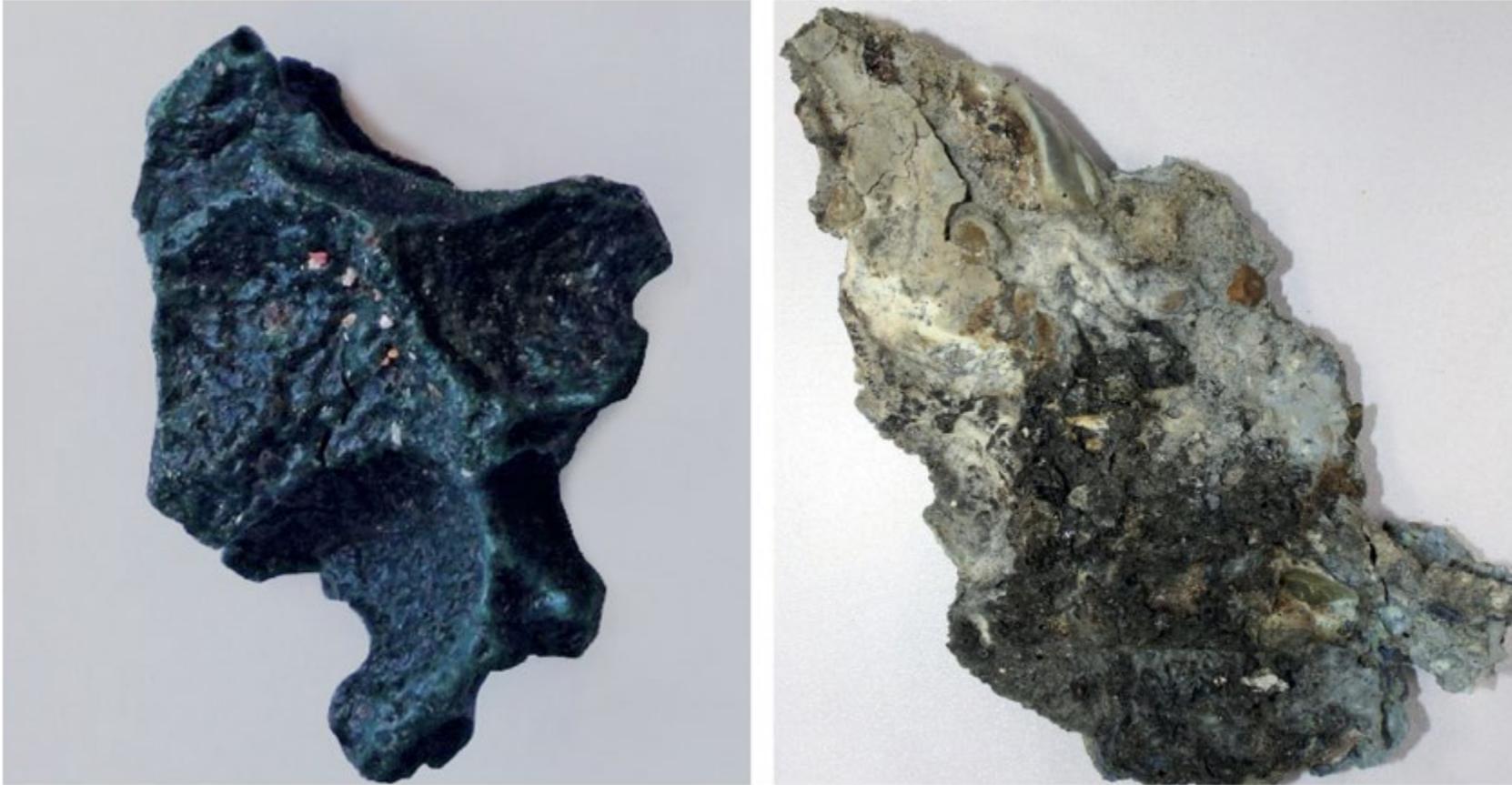
**관광객들이 찾는 모래사장에는 떨어져 나온
파이로플라스틱이 작게 쪼개져 모래 사이에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또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녹아 해안가를 뒤덮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피로플라스틱에 대한
논문의 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독성이 최대 10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해안가를 뒤덮은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 이 문제를 알리는 방법으로 환경예술 체험을 활용했습니다. 폐목재와 바다유리, 플라스틱을 활용한 미니어처 형식의 예술소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파이프플라스틱을 활용한 예술창작활동으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방송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한편 제주도에서 열리는 환경행사에
초대돼 파이로플라스틱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예술가 역시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아마도 8년이라는 짧은 기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그림책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셔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6권의 그림책 작업을 했고, 번역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그림책들이 읽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꿈나다 환경예술학교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제가 살고있는 제주도에 작은
환경예술학교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각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만나 미래의 환경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SATIT
RAKSASRI**



**JI-HWAN KIM
(BADASSEUGI)
김지환
(바다쓰기)**



**FRANCIS
SOLLANO**



**PLASTICITY
THEATRE
TROUP**

ASEAN KO-MMUNITI CONVENTION
GROUP 2: ART & OUR ENVIRONMENT

25 AUGUST 2020 **3:00PM-5:00PM (SGT)**

FIND US AT [HTTPS://BIT.LY/ASEANKOMMUNITICONVENTION](https://bit.ly/aseankommuniticonvention)
OR [HTTP://FACEBOOK.COM/ARTSOLUTE.ASIA](http://facebook.com/artsolute.asia) FOR MORE INFO!

#KOMMARTSEAN #KONNECTASEAN #ROKASEANART



**KONNECT
ASEAN**
EMBRACE UNITY IN DIVERSITY

ORGANIZED BY: *artsOluTe*



TUESDAY 25 AUGUST



JI-HWAN KIM 김지환
Up-cycling Art Artist, 바다쓰기 Badasseugi
REPUBLIC OF KOREA

ART & OUR ENVIRONMENT



**KONNECT
ASEAN**
EMBRACE UNITY IN DIVERSITY

ORGANIZED BY: *artsOluTe*

이 자리를 통해 뜻이 있는 환경리더들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가 바라는건 큰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고있는 제주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